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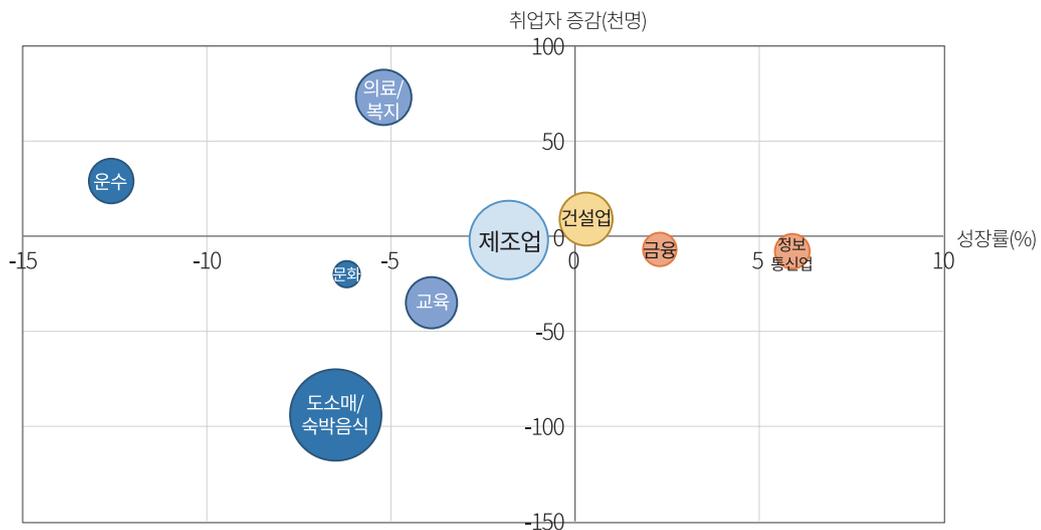
2. 국내 경제 전망

가. 최근 국내 경제 상황

□ 국내 경제는 금년초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다 1분기중 코로나19 충격으로 민간소비(전기대비 -6.5%) 및 서비스업(-2.7%)을 중심으로 크게 부진(-1.4%)

— 도소매·음식숙박 및 교육 서비스 등 고용비중이 큰 서비스업의 취업자가 감소하였으며 일시 휴직자(4월 +148만명)도 크게 확대

〈그림 I-10〉 2020년 1분기 업종별 성장률 및 고용



주 : 취업자 증감 및 성장률은 전기대비(계절조정). 원의 크기는 2019년중 고용 비중을 반영
 자료: 한국은행, 통계청, 자본시장연구원

□ 최근 들어 코로나19 감염확산 진정 및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소비는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수출 부진은 지속

— 소상공인 신용대출 등의 고빈도 데이터를 살펴보면 4월초 재난지원금이 지원된 경기도를 시작으로 5월초 전국단위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비 회복세는 뚜렷

- 통상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낮을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이 소득 차별 없이 지급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용처를 소상공인 등으로 제한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특정하여 지원(targetedness)하는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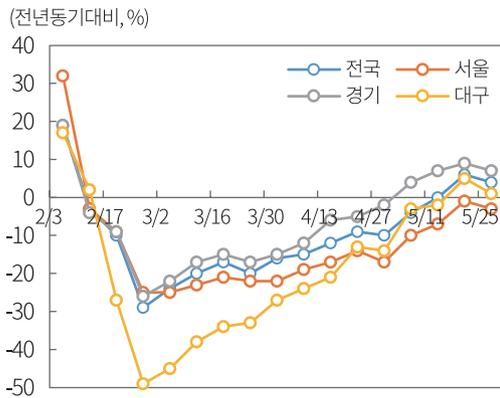
〈표 1-3〉 이전지출 재정승수¹⁾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

손민규·김대용·황상필(2013) ²⁾	0.26
박형수(2013) ³⁾	0.21
지정구·한경수(2016)	0.24
이강구·허준영(2017)	0.37

주: 1) 재정투입 당시의 지출 증가분 대비 당해연도 GDP 증가분
 2) 한국은행 분기거시계량모형(BOK12) 재정모형
 3) 조세연구원의 거시-재정모형을 통해 산출된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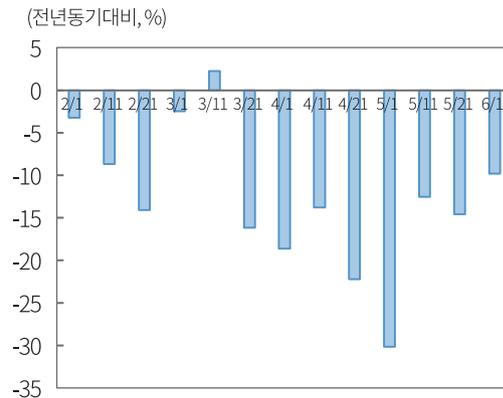
- 반면 수출은 중국의 3월중 생산재개로 회복세를 나타내다가 미국 및 유럽 지역의 대외수요 부진으로 3월 하순 이후 부진한 흐름이 지속
 -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수출전망은 금년 1월 88 → 4월 66 → 6월 50으로 하락

〈그림 1-11〉 소상공인 신용매출



자료: 한국신용데이터

〈그림 1-12〉 통관수출



주 : 10일 단위 일평균 통관수출
 자료: 관세청

나. 경제 성장률 전망

□ 금년중 국내 경제는 역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(2020년 -0.8% → 2021년 3.4%)

— 코로나19에 따른 대내외 수요 부진으로 민간소비, 수출 등 지출항목이 모두 부진한 데 기인

- 2019.11월 전망과 비교하면 2020년 전망은 3.0%p 하향 조정하였으며 2021년 전망은 1.0%p 상향 조정

〈표 1-4〉 경제 성장률 전망 (기본 시나리오 기준)

(단위: 전년동기대비, %)

	2019년	2020년			2021년
		상반기	하반기	연간	
GDP 성장률	2.0	-0.3 (-0.9)	-1.3 (0.2)	-0.8	3.4
민간소비	1.9	-3.6	-0.4	-2.0	3.6
건설투자	-3.1	-0.6	-5.5	-3.2	-1.1
설비투자	-7.7	2.8	-2.0	0.4	5.4
총수출	1.7	-0.5	-3.9	-2.3	3.9
총수입	-0.4	-1.1	-1.0	-1.0	3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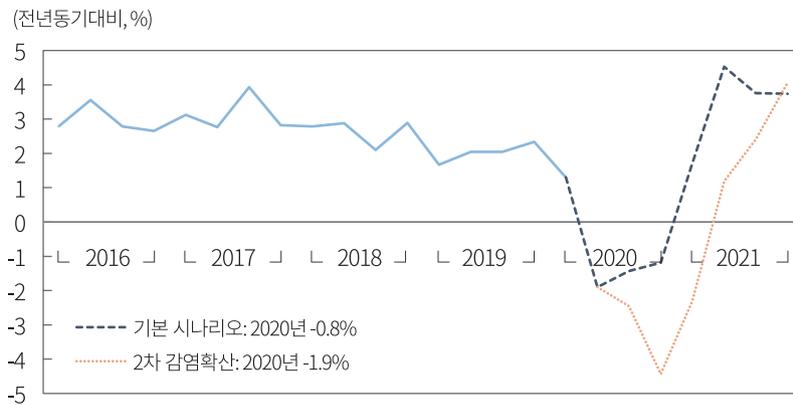
주: ()내는 전기대비

□ 향후 성장경로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금년 2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나 2차 감염확산의 경우 저점은 4분기로 이연될 전망

— 2021년에는 3% 중반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나 여전히 잠재GDP를 하회하는 수준

- 2차 감염확산의 경우 2021년 성장률이 1% 초반 수준으로 하락하여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

〈그림 I-13〉 국내 성장경로



주: 2차 감염확산은 국내를 제외한 주요국 감염확산(3분기말~4분기중)으로 대외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

□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성장경로의 상하방 불확실성이 확대

- 상방 불확실성: 코로나19 충격에 비례하여 하반기중 각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거나 5월 이후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선진국 경기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회복될 가능성
- 하방 위험: 시나리오 분석에서 언급한 코로나19의 2차 감염확산 또는 미중 무역분쟁의 재점화 및 IT경기 회복 지연 등에 유의할 필요
 - 또한 국내 요인으로 고용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상존

〈표 I-5〉 전망 위험요인

상방 불확실성(+)	하방 위험(-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외 적극적 경기대응 • 경제활동 재개후 선진국 경기의 가파른 경기 회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코로나19의 2차 감염확산 • IT경기 회복 지연 • 미·중 무역분쟁 재점화 • 고용부진에 따른 가계부채 악화